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주독일 한국문화원 김주원**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독일 문화 정책의 특징과 2018년 동향	4	
2		독일의 상호문화성 정책, 세계문화의집(HKW) 소개	6	
3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베를린 트렌스미디어알레 KINDL - Centre for Contemporary Art1) 특별전시 2) 특별 프로젝트 "HATE LIBRARY" 3) 토크 & 필름 & 비디오 하이라이트	11	
4		Berlinale 2018 / 베를린 영화제	13	
5		Berliner Festspiele / 베를린 현대 음악제	15	
6		Gallery weekend berlin / 베를린 갤러리 워크앤드	16	
7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독일 연방총리실 문화미디어청	20
8			Haus der Kulturen der Welt / 세계 문화의 집	20
9			KINDL-Centre for Contemporary Art / 킨들 현대미술센터	21
10			The Barenboim-Said Academy /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	23
11			Urban Nation / 얼반네이션	24
12			Deutsche Bank KunstHalle / 도이체 방크 쿤스트할레	25
13		공간	Berlinische Galerie contemporary art museum / 베를린 현대미술관	27
14			volksbühne berlin / 폴크스뷔네 극장	30
15			C/O Berlin	32
16			Berliner Ensemble / 베를린 앙상블	33
17			Konig Gallery / 쾨니히 갤러리	35
18	축제 및 행사	CTM 2018 - TURMOIL (Festival for Adventurous Music and Art)	37	
19		AUDI E-TRON "SYMPHONY OF NOW" - A CINEMATIC LOVE LETTER TO BERLIN	38	
20	인물	KAY WUSCHEK	40	

□ 현지동향

I. 현지 동향			
유형	문화/정책	장르	복합장르
관련링크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4604		

독일 문화 정책의 특징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데 반해, 독일하면 떠오르는 “간판” 같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딱 짚어서 말하기가 힘들다. 이는 독일 문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문화 연방주의” 때문인데, 독일은 문화 기관들과 문화 관청들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도시들까지 고유한 문화 전통과 탄탄한 문화 인프라(공공극장, 박물관 등)를 갖추고 있고, 그 기관들의 운영 역시 지역에 맡겨져 있다.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3제국시대와 옛 동독 시대를 제외하고 사실 중앙집권제를 취한 적이 없다.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여러 군소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문화 자치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존속되어 왔다. 독일은 슈타츠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오페라단, 발레단, 오케스트라 등이 많이 존재하는 데 이는 도시(슈타츠:Stadt)가 독자적으로 문화에 관여해 온 독일 역사를 반영한다. 1806년까지 독일의 큰 도시들은 독립적인 독일 제국 직속 하에 있었다. 지역 군주가 아닌 황제 직속 하에 있었기에 도시들은 보다 덜 착취당하였고,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렸다. 그것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졌고, 시는 문화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독일의 문화 분권주의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더구나 1667년 드레스덴 궁정에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지자, 곧 뮌헨, 비인, 볼펜뷔텍, 다름슈타트, 바이로이트도 이를 뒤쫓는 등 영주들 간의 경쟁 역시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가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 기여했다.

독일은 유달리 박물관이 많은 나라인데, 소규모 박물관을 제외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박물관만도 200여 개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박물관들은 19세기 산업화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의 후원과 기부에 의해 더욱 강고해 졌다. 미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미술관들과 대학들이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은 그 소유 및 기부가 개인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정부는 제3제국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문화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1949년 서독의 기본법은 긍정적인 경험은 보존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피한다는 원칙하에 “민족 사회주의에서의 문화의 과도한 정치적 오용의 경험”(Klein 2004, 88)을 씻어내는 데 주력했다.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저지, 그리고 분명한 연방적 조직화를 통한 문화정책의 탈 중심화를 분명히 했다. 획일적인 통제 하에 문화가 야만으로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법 28조 2항에 “지역 공동체의 모든 용무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책임으로 통제하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고, 이 안에는 문화적 과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지역 공동체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데, 결국 어떤 문화가 육성되고 발전되느냐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되며, 그 지역의 재정에도 크게 좌우된다.

1998년 슈뢰더 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 연방 내에 문화부라는 부서조차 따로 존재 하지 않았다. 슈뢰더 수상 이후 문화와 관련한 국가장관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문화에 관한 주권마저 연방에 이전된 것은

아니다. 문화관할은 원칙상 연방으로부터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다시 지방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소관사항이 뒤바뀌어 진행된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에 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초지역적인 과제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일 경우 주정부가 개입한다.

2013년 독일 문화 재정지출

(단위: 백만 유로)

	문화	문화근접분야	합계
2013년 독일 주정부별			
바덴-뷔템베르그(Baden-Württemberg)	1 138.5	200.2	1 338.6
바이에른 (Bayern)	1 319.9	232.7	1 552.5
베를린 (Berlin)	599.0	38.1	637.2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243.2	31.1	274.3
브레멘 (Bremen)	105.6	24.2	129.8
함부르크 (Hamburg)	338.6	12.6	351.2
헤센 (Hessen)	644.4	114.4	758.9
메클렌부르크 포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155.4	32.5	187.8
니더작센 (Niedersachsen)	556.6	179.3	735.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1 560.9	254.7	1 815.6
라인란트 팔츠 (Rheinland-Pfalz)	259.1	82.9	342.1
잘란드(Saarland)	77.1	10.7	87.9
작센 (Sachsen)	775.8	39.5	815.3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276.7	49.6	326.2
슐라이스비히 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193.5	19.1	212.6
튀링겐(Thüringen)	303.3	43.9	347.2
주정부 합계	8 547.6	1 365.4	9 913.0
2013년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별			
연방정부 (Bund)	1 344.4	544.7	1 889.1
주정부 (Länder)	4 051.7	979.9	5 031.6
기초자치단체 (Gemeinden/Zweckverbände)	4 495.9	385.5	4 881.4
독일 전체	9 892.0	1 910.1	11 802.1

2016년 말 펴낸 2차 문화재정보고서(Kulturfinanzbericht)를 따르면 (2013년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독일은 2013년 문화 재정으로 총 99억 유로(한화 약 13조원)를 지출했다. 문화재정의 지출 총액은 독일 GDP의 0.35%, 독일 총 재정지출의 1.68%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122,48유로를 지출한 것과 같다.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규모이지만, 재정 지출 주체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이 지역 정부라는 특이점이 있다. 독일의 문화재정 지출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Gemeinde)가 각각 41.0%, 45.4%로 지역 전체 비율이 총 86.4%에 이른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13.6%에 불과하다. 문화 분야에서 특히 독일이 중시하는 연방제 원칙 및 지역별 다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독일이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영역은 연극과 음악,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해외 문화, 기타 문화 관리, 예술대학, 문화행정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즉 중앙과 지역간의 역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3년 독일 문화 분야별 재정지출 비율

(단위: %)

	합계	그 중							
		연극 및 음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해외문화	예술대학	기타	문화행정
독일연방	100	2.0	22.6	22.8	6.3	29.5	-	16.8	-
주정부	100	38.8	10.3	14.1	5.8	0.1	13.7	12.8	4.3
기초자치단체	100	41.4	15.7	23.1	3.8	-	-	14.5	1.5
독일 전체	100	35.0	14.4	19.4	5.0	4.0	5.6	14.1	2.5

독일 연방정부는 해외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자국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정부의 경우 연극과 음악 분야, 즉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연

및 축제, 문화 행정 및 예술대학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크다. 예술대학은 특히 문화와 교육이 결합되어 그 어떤 분야보다 연방제도의 특성이 강조되는 부문이다. 반면 해외에 독일 문화를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국제적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 지출은 대부분 독일 연방에서 담당한다.

<2018년 동향>

독일의 문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2018년 문화 정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6억7000만 유로(약 2조1740억원)로 지난해보다 약 3억1200만유로 (약 4061억7000만원) 증가했다. 2005년 앙겔라메르켈이 연방 총리를 맡은 이래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문화 예산은 60퍼센트가 증가했다. 독일 문화부장관인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uetters)는 2018년 예산안과 함께 '문화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다. 문화의 전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카 그뤼터스는 '예술과 문화는 '가교'로서 그 어느때보다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 지원을 통해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예산안은 지난해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독일 정부 및 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통해서 독일 연방정부가 중요시 하는 문화 정책을 엿볼 수 있는데, 2018년 예산안에서는 크게 독일의 전통 문화 보존 및 강화(문화재보호법, 영화 유산 디지털화, 클래식 음악/연극/문학 등 전통 고급 문화 지원)와 다문화 지원(독일 국영 방송 지원, 다문화 미디어 및 기관 지원)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음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데 베를린 필하모닉과 베를린 오페라극장에 각각 750만유로, 1000만유로를 지원한다. 독일 국영 홍보 방송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독일의 소리)' 지원금이 2570만유로 증액되었고, 올해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랍어와 터키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 제작한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에 따른 반이슬람 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와 미디어 분야 예산이 책정되었고, 문화적 통합과 미디어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650만유로가 쓰일 예정이다. 또 중동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인 '베를린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Barenboim-Said-Akademie)'에 670만 유로를 지원한다.

유형	문화공간소개	장르	복합장르
관련링크			

독일의 상호문화성 정책, 세계문화의집(HKW) 소개

[배경]

독일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 연방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각 지역의 정책 방향이 일괄적인 것은 아니나, 독일의 문화정책 역시 일정한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문화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구서독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68혁명 시기까지를 통틀어 “문화 보호의 시대”로 부르는데, 이 시대의 정책 방향은 “고급문화 후원”에 있었다. 당시 서독은 전쟁과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키는 히틀러의 명령을 지우고 새로운 독일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던 중, 1949년 탄생 200주년을 맞는 괴테를 이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통해 자국의 문화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전략이었다. 독일의 여러 극장들은 인류애적 휴머니즘 정신을 강조한 괴테의 “이피게니아”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극장에서는 괴테를 비롯한 독일 고전주의자들의 작품이 공연되었고, 콘서트홀에서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미술관에서는 칸딘스키, 클레, 몬드리안의 전시가 주를 이뤘다. 또 전쟁 중에 파괴된 극장,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 도서관, 문서보관소의 재건을 위한 후원금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대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정통 부르주아 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이 문화 정책에 대한 지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68혁명과 1969년 사회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수상 빌리 브란트는 정부 성명에서 연속성과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 변화에의 능력이라는 세가지 “내적 변혁” 강령을 선언했다. (Glaser 339) 브란트가 제기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문화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1971년 외무성의 문화국장 게오르크 슈텔처는 기존의 고급문화 중심의 문화정책과 가진 한계성과 왜곡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문화개념은 문명과 문화를 구분한 지엽적 개념임을 반성함과 동시에 “모두를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라는 확장된 문화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로서 고급 문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사회문화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었고, 시민대학, 음악학교, 미술학교도 새로 건립되면서, 폭넓은 대중들에게 예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 독일 통일로 인한 문화재원의 악화가 맞물리고, 문화운영에서 경영학이 도입되면서 상업적인 문화사업도 일부 정책적인 고려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공적으로 지원되는 문화 공급의 과잉은 문화 재원이 악화되면서 곧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 시민들이 “어떤 문화를 원하는 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문화 공급이 시민들에게 올바른가”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자”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 되었다. 문화 보호, 문화 작업의 시대를 거쳐 1990년 이 시기를 “문화 경영의 시대”라 칭한다. 문화연방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시장의 원리로부터 자유로웠기에,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 작업이 뒤쳐져 있던 상태였다. 1996년 브레멘 주 정부는 공공극장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한 반면에 뮤지컬 극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후원금을 지불했다. 다른 주의 전통적인 국립극장과 공연장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 운영 인원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한 기관들은 입장권 이외의 수입원을 찾는데 주력해야 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축제로 그 탈출구를 찾았다. 축제는 연중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에 주로 개최되는데, 지역 연극 극장의 경우 이를 통해 예산의 23퍼센트 정도를 자체 해결하게 되었다. 여름 축제를 통한 수입원의 확보는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의 당위성에 충분한 논거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적 개념이 비정형적인 트렌드에 따라 그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과, 장기 정책의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2000년대 이후의 독일 문화 정책 - 상호문화성>

2005년 새로 등장한 정부는 문화 후원이 “독일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투자” (메르켈 수상)이며, “문화를 통상재화로 평가절하 할 수 없음” (문화부 장관 베르튼 노이만)을 강조했다. 독일의 문화정책가 슈에이트(Oliver Scheytt)는 독일 사회가 서비스사회, 정보사회, 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문화사회란 노동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가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나 삶의 보완물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시간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삶을 뜻한다. 슈에이트는 문화사회란 ‘문화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chett, 15-16) 동시에 ‘문화정책’의 저자 폭스(Max Fuchs)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근거로 주도문화의 주창자들을 비판하며, 상호문화성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화는 성장을 강요하는 산업사회의 생활 방식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 이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즉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된 것은 사실 서구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

2002년, 2003년 무렵 이민법 논쟁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근거로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상호문화에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18일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후,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력, 평화와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인간의 권리와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간

주된다는 내용의 이 협약 체결을 위해 독일은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를 국내 정책에서도 수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 문화정책회의에서 상호문화가 주제로 채택되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적극적인 방향 전환 요구되었고,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 자원이며 기회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상호문화성 정책이 구현될 수밖에 없는 보다 현실적인 요구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출생률은 1.3명에 그치고 있고, 인구 100명 중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현재 44명에서 2020년에는 55명으로, 2030년에는 7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층의 문화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또 다른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당연 인종 변화이다. 현재 독일의 이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고 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대도시의 경우 이미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비독일인 출신이며,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비독일인이 이미 다수가 된 상태이다. 인구 12만 명에 지나지 않는 슈바벤 하일보른의 경우 주민의 46퍼센트가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0세에서 14세 연령에서는 6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갈수록 다원적인 생활양식과 가치들로 사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기에, 이주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독일의 교양시스템에서 소홀히 하고 독일적 주도문화만을 주장할 경우에 이는 곧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



다는 주장은 상호문화성 정책을 강화시켰다.

Foto: Sabine Wenzel | The Haus der Kulturen der Welt at night

< HKW(세계문화의집) >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das Haus der Welt in Berlin)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자국 문화를 넘어,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들, 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문화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굴 껍질 모양 아치형 지붕 때문에 Oysters라는 별명을 가진 HKW는 베를린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티어가든 공원 한 가운데 있는 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광장은 17세기 때만 하더라도 사냥터 및 유원지로 쓰이던 곳이었다. 1950년 이 광장에 의회 건물이 세워졌고, 이 건물은 1956년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회의, 행사, 전시 등 다양한 국제 행사의 장소로 쓰이면서 베를린 시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1980년 건물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끝난 1987년, 베를린시 설립 7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와 문을 다시 열었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제교류를 위한 문화 행사만을 지속적으로 주최할 장소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연방 정부는 1989년 이 건물을 HKW(세계문화의집) 이라 명명했고,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낭독, 워크샵, 무용, 연극, 영화, 축제의 장소로 쓰이기 시작했다. 독일 내 대부분의 문화 기관이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HKW의 주 예산은 연방 정부 문화 예산이며,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KW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지금으로부터의 100년(100 Years of now)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자와 작가, 국가 간 협력해 출판, 강연, 전시, 콘서트, 영화 상영, 축제 등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문화적, 역사적 개념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갖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다. 열린 자세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하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고 약 4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프로젝트 서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나?
어떻게 단일민족국가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세계정세로 바뀌어 왔는가?
근대화 이념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음악은 얼마나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여전히 저항의 도구로써 쓰일 수 있는가?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 Laura Fiorio / HKW

영역별로 살펴보면, 낭독 프로그램 중 1927년에 쓰인 “난민. 제네바 호수 에피소드”(1927)라는 옛 텍스트를 함께 읽는 낭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자 스테판 즈웨이그는 1차 세계 대전 중 러시아 군대가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인 제네바 호수에 도착했을 때, 한 개인의 끔찍한 운명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권력에 의해 스러져 가는지를 담담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난민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번은 가졌던 그리고 언젠가 가질 수 있는 공유의 역사임을 환기 시켰다. 낭독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로의 눈높이에서의 대화” (a dialogue at eye level)를 통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있다.

다양한 나라의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험적인 음악제 “Free! Music program”은 상업 음악과 별개로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이 시대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자유롭게 표출 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관객이 함께 실험해 나가면서 답을 찾는 프로젝트이다. 또 덴마크 출신인류학자인 Tore Tvarnø Lind는 고의로 조성된 난폭한 음의 진행과 연주, 혹은 강요된 반복 청취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게 고문 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탐구 했고, 이 결과를 관객들과 함께 나눴다. 신체에 살짝 피가 날만큼의 작은 생체기를 난 후 신경이 잔뜩 예민한 상태에서 3일간 수면을 금지시키고 Aerosmith의 곡 Meat Loaf를 들려준 뒤,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한 이디오피아 테러리스트의 사례,



실제로 미국이 고의로 강렬한 음악이 담긴 CD를 군대와 일반인들을 통해 배포시켜 이라크, 쿠바, 아프가니스탄의 감옥에서 쓰인 CIA의 작전명 “dark sites” 등의 흥미로운 사례를 공유했다.

© HKW

또 역사를 재서술하기(Re-Narrating History)란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사 혹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개념이 현재에 갖는 의미를 아티스트와 학자가 함께 토론하고, 이를 웹사이트 공유하고 출판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를 들면 “레디메이드” 개념 미술의 시작을 알린 마셀 뒤샹의 변기 작품을 지금의 시각으로 다시 보고, 그 뒤 시대에 따라 이 “레디메이드”란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지금에 있어서 개념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Ho Tzu Nyen, One or Several Tigers, 2017 (film still) | Courtesy Ho Tzu Nyen © HKW

대표적인 전시로는 러시아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Cosmos”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모더니즘이 러시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 “Art Without Death: Russian Cosmism”와 강연 시리즈가 개최되었다. HKW의 수석 큐레이터 안젤름 프랑케(Anselm Franke)와 김현진 큐레이터가 공동 큐레이팅한 전시가 작년 화제를 모았다. 전시 제목은 영화/극 제작자인 Ho Tzu Nyen의 작품 “2 or 3 tigers”에서 따왔다. 전시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 오며 아시아 각 나라의 고유문화 혹은 미신 속 호랑

이가 상징하는 바가 어떤 식으로 시대에 따라 변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란 말은 사자를 뜻하는 “Singa”와 도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pore”가 합쳐진 말이다. 사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자인데, 역사상 싱가포르에 사자가 존재한 적이 없다. 싱가포르 국가의 창시자인 Sang Nila Utama가 멀리서 본 호랑이었으리라 추측한다. 당시 싱가포르에 많은 수의 호랑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국 신화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이라 믿는 이야기가 사실 착각을 기반으로 한 만들어진 미신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19세기 영국 식민지 당시 기존의 숲을 밀어 버리고, 대규모 농장이 지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농장 혹은 도시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년에 많게는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자, 영국은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그 결과 20세기 초 싱가포르에서는 완전히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자, 호랑이란 뜻은 시대에 따라 두려움의 상징, 숲 속에 숨어 있는 용감한 용사 혹은 적 등 여러 갈래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시에서 동물의 시각으로 아시아 현대사를 바라봤다는 점이다. 인간의 시각과 컨텍스트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반수반인의 상태로 바라본 아시아 현대사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배워 온 현대사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찬경, 임흥순, 임민욱 작가의 작품이 초대되었다.

유형	문화공간소개	장르	복합장르
관련링크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베를린 트렌스미디어알레

매년 베를린 아트씬은 HKW(세계문화의집)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트렌스미디어알레와 함께 새해를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대 현대미술과 디지털 문화의 접점을 모색해온 트렌스미디어알레는 이번에도 우리 시대가 기술과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토크, 필름 스크리닝, 퍼포먼스 등이 함께 열리는데, 올해는 12회를 맞이해 주제를 FACE VALUE로 정했다. 한국어로 러프하게 번역하면 액면가, 보통 증서/증권의 표면에 숫자로 쓰여 있는 액수를 말하는데, 표면에 표기된 사물의 가치와 사물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가치 사이에 대한 성찰을 올해의 주제로 삼았다. 인종과 성별, 나이, 국적, 타고난 외모 혹은 차후 변형된 외모 등에 따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각자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종종 타인의 가치를 유추한다. 이런 판단 과정 자체를 기술을 통해 다시 재현시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선보여졌고, 인간 자체 혹은 어떤 사물 자체를 그 그대로의 가치로 보는 것에 대해 철학적, 미학적, 사회적 토론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트렌스미디어알레의 알짜 프로그램인 스크리닝 프로그램도 올해 역시 야심차게 준비되었다.

1) 특별전시

미국인 첼시 매닝(성전환수술전 이름은 브래들리 에드워드 매닝)은 25만건의 외교문서, 48만여건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군비밀 문서를 폭로전문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폭로한 죄로 체포되어, 35년을 선고 받아 군사감옥에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 본인의 성정체성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치료 차원의 성전환 수술을 정부에 수차례의 요청한 후, 그는 드디어 수술을 받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 언론은 수술 후 그를 취재하려하지만, 군 당국은 이를 거부한다. 수술 전 그의 상사에게 보낸 여장을 하고 찍은 흑백 사진 외엔, 그의 모습을 전혀 알길이 없었다. 이에 첼시의 지지자들과 한 잡지사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아티스트 헤더 듀이-하그보그는 2012년부터 담배꽂초등에서 인간의 DNA를 추출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을 구현하고, 이를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DNA 주인의 얼굴을 구현하지는 못하지만 성별, 눈과 머리 색, 주름, 안색, 비만도 등은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매닝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매닝의 DNA 초상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고, 작가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용, 매닝의 새로운 얼굴에 가까운 마스크를 3D프린팅으로 재현하고 이를 전시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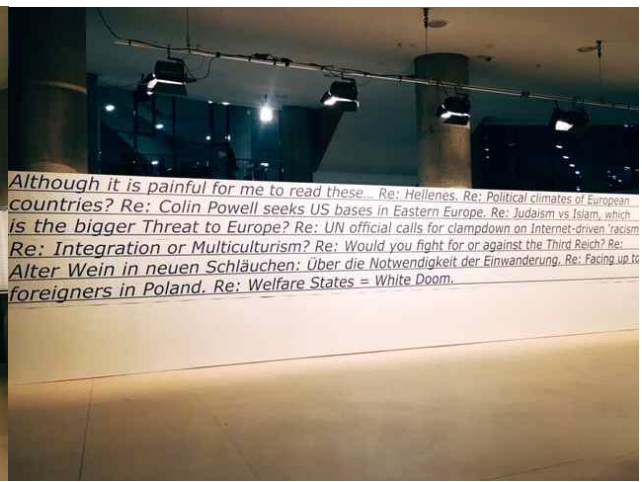
© 김주원

2) 특별 프로젝트 "HATE LIBRARY"

작가 닉 쉘스톤(Nick Thurston)과 역사학자 메튜 펠드먼(Matthew Feldman)이 공동 작업한 본 작업은 유럽의 극우파들 간의 이메일 및 채용 포스트, 기사,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극우파 활동가들의 댓글, 관련 컨퍼런스 자료집 등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사전 형식으로 재편한 작업이다. 중립적인 단어들인 그들간의 대화 속에서 어떤 뜻으로 새로이 재해석되는 지를 봄으로써, 파시즘, 나치즘, 극우파 등 유럽에서 새로이 부흥하고 있는 극우파들의 정치적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관객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날 것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설치로 풀어냈다.



© 김주원



© 김주원

3) 토크 & 필름 & 비디오 하이라이트

트렌스 미디알레가 동시대 현대미술과 디지털 문화의 접점을 모색해온 만큼, 다양한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토크와 필름, 퍼포먼스, 스크리닝 이벤트가 연일 벌어졌다. 주요 주제로는 연합정부의 새로운 포맷,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본 해양지역의 정치적 재분배, 인터넷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 (영향, 속도, 접근성), 금융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급진적 해석, 실리콘 벨리 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신비주의 등이 있었다.



토크 장면 © 김주원

* 비디오 아카이브 링크 :

https://transmediale.de/archive/media?f%5B0%5D=type%3Avideo_embed&f%5B1%5D=taxonomy_vocabulary_5%3A9010

유형	영화제	장르	영화
관련링크	https://www.berlinale.de		

2018 베를린영화제



한국영화의 밤 행사 사진 (copyright : 주독일한국문화원)

매년 2월 베를린의 가장 큰 행사는 베를린 영화제로, 이 기간 영화의 도시 베를린에는 세계 영화 관계자가 모일 뿐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베를린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다.

1951년 영화 역사인 알프레드 바우어를 디렉터로 개최된 것이 시초로,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예술의 도시로 번영했던 베를린은 서유럽의 거점이며, 동유럽 쪽에 있는 당시 서베를린에서 서방 측의 예술 문화를 어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1955년에 FIAPF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처음

에는 동유럽쪽의 작품은 제외되었으며, 소련의 첫 참가는 1974년이다. 바우어의 은퇴 후 1976년 뷔루프 도너가 제2대 디렉터로 취임했다. 도너는 여름에 개최했던 영화제를 2월 개최로 바꾸었다. 1980년 제3대 디렉터로 취임한 모리츠 데 하데룬은 할리우드 영화에 중점을 두는 셀렉션을 영화제에 선보였다. 1994년 영화제에도 불어닥친 GATT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 측이 영화제를 보이콧하자 할리우드 중시 방침은 큰 영향을 받았다. 2000년 하데룬은 디렉터 해임을 당했고, 2001년 은퇴하여 2002년부터는 디터 코스 릭이 제4대 디렉터가 되었다.

베를린 영화제는 경쟁 부문, 포럼 부문, 파노라마 부문, 리토르스펙티브 부문, 청소년 영화 부문, 독일 영화 부문의 6개 공식 영역이 있다. 각 영역의 디렉터가 있으며, 독립적인 운영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타, 2004년부터 시작된 베를린 영화제 스페셜이나 영화를 사고파는 《유럽 필름 마켓》(European Film Market) 등도 개최된다.

올해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가 2월 15일 부터 25일까지 열렸고,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아일 오브 독스'가 선정됐다. 애니메이션이 베를린영화제의 문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웨스 앤더슨은 2014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은곰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베를린영화제는 총 380여 편이 상영됐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총 4편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모두 비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박기용 감독의 '재회'와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도 각각 포럼 부문에서 관객을 만났고, 지난해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홍상수 감독은 신작 '풀잎들'로 포럼 섹션에 초청됐다. 포럼 섹션은 각국 독립영화와 실험적 성격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부문이다.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아시아 영화는 라브 디아즈 감독의 '시즌 오브 더 데빌'(필리핀)과 마니 하기기 감독의 '피그'(이란) 등 2편이 포함됐다.

영화 '향수'의 톰 티크베어 감독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에는 벨기에 출신 배우 세실 드 프랑스와 일본 영화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등이 참여했다.



황금곰상 수상작인 '터치 미 낫' 감독 아디나 핀틀리에 및 주연배우
copyright : Berlinale 2018

올해 황금곰상의 주인공은 모두가 예상한 것 처럼 동구권 영화였다. (지난해 황금곰상 수상작 : 헝가리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루마니아 영화 '터치 미 나트'(감독 아디나 핀틀리에)이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곰상을 수상했고, 감독상(은곰상)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으로 관심을 모은 미국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아일 오브 독스'가 받았다. '아일 오브 독스'는 바이러스에 걸린 개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유기되는 도시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남자배우상은 프랑스 세드릭 칸 감독의 영화 '라 프리에흐'에서 마약 중독자 연기를 선보인 배우 앙토니 바준이, 최우수여자배우상은 파라과이 영화 '라세레데라스'(감독 마르셀로 마르티네시)의 배우 아나 부룬에게 돌아갔다.

더불어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한국 영화의 밤'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제68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를 축하하고, 한국 영화인과 세계 영화인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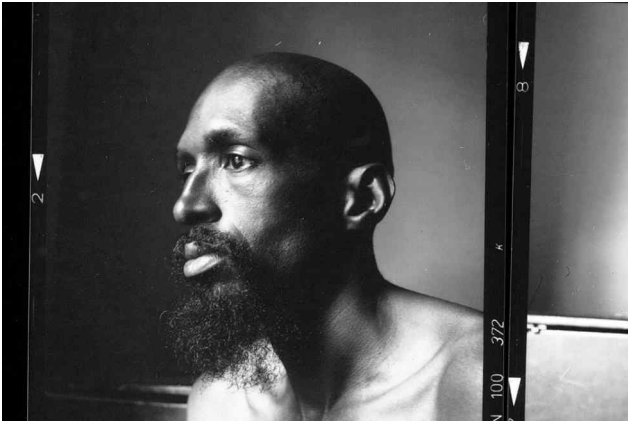
전주 국제영화제 이충직 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전양준 집행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최용배 집행위원장, 서울여성영화제 김선아 집행위원장,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김홍준 집행위원장 등 국내 인사 뿐 아니라 크리스토프 테레히트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집행위원장, 앙스가 보트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프로그래머, 베니스국제영화제 알베르토 바르베라 집행위원장, 칸국제영화제 벤저민 일로스 감독주간 프로그래머 등 세계 3대 영화제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유형	축제	장르	음악
관련링크	https://www.berlinerfestspiele.de/en/aktuell/festivals/maerzmusik/ueber_festival_mm/aktuell_mm/start_maerzmusik.php		

베를린 현대 음악제

베를린 시는 Berliner Festspiele라는 별도의 축제 연합체를 운영, 도시 내 다양한 장르와 공간을 아우르는 예술 축제가 일년 내내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애쓰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전시 공간인 Gropius Bau과 함께, 2월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를 시작으로 베를린 현대 음악제(MaerzMusik), 재즈페스티벌(Jazzfest Berlin), 클래식 음악제(Musikfest Berlin), 연극제(Theatertreffen), 무용축제(Tanz im August) 등을 개최하고 있다. 각 행사마다 다른 예술감독을 지정하며, 베를린 내 주요 극장 및 예술 공간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월은 베를린 현대음악제 MaerzMusik이 열리는 달로, 올해 4회째 열리는 이 음악제는 현대음악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재 Berno Odo Polzer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고, 올해는 “시간”(Time issues)을 주제로 삼았다. 음악의 속성을 어느 한 시간대에 속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다른 세대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미스터리한 속성을 가진 음악을 통해 동시대성이란 무엇인가에 의문점을 던지고자 했다.



©Julius Eastman



© Terre Thaemlitz

미국 뉴욕 출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행위예술가였던 고 Julius Eastman의 작품을 개막작으로 택했다. 이스트먼의 작품이 처음 독일에 선보이는 자리로, 1970년에서 1980년대 사이 만들어진 이스트먼의 주요작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홀로 부르는 독창곡부터 시작해서 10명이 함께 각기 악기와 같이 소리를 만들어 내며 협주를 하는 곡, 16개의 전자 기타가 만들어내는 앙상블 곡들이 연주되었다. 이 외에도 실험적인 다양한 현대 음악가들의 공연과 협연이 10일 동안 계속되었다. 미국 출신 트랜스젠더 예술가인 Terre Thaemlitz 작품이 주목을 받았는데, Terre는 음악가이자 프로듀서, 작가, DJ 이기도 하다. 비디오 인스톨레이션과 함께 장소특성적 프로젝트를 주로 선보이는데, 주로 정치,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 계층, 언어, 인종 간의 문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올해 축제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Soulnessless”의 라이브 버전 공연이 선보였는데, 무려 30시간 동안 피아노 연주를 하는 공연이 펼쳐져, 관객은 낮과 밤을 떠나 그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 곡은 그의 앨범 세상해서 가장 긴 앨범 (“World’s Longest Album in History”)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토크 및 강연, 워크숍 프로그램인 “Thinking Together” 과 베를린 예술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QuerKlang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MaerzMusik



©MaerzMusik

유형	연간 행사	장르	시각예술
관련링크	http://www.gallery-weekend-berlin.de		

베를린 갤러리 위크엔드

GALLERY APRIL WEEKEND BERLIN 27-29 2018

FRIDAY, APRIL 27, 2018

6 - 9 PM

SATURDAY AND SUNDAY,

APRIL 28 AND APRIL 29, 2018

11 AM - 7 PM

올해 14회째를 맞는 갤러리 위크엔드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 행사의 연계 프로그램이자 아트페어인 <아트 베를린 컨템포러리>의 감독을 맡은 마이케 크로제가 2013년 이후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2005년 사설 갤러리들의 연합 행사로 시작되었으며, 베를린 아트 신 초기에 자리 잡은 역사적인 갤러리부터 신진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50여개의 베를린 갤러리가 참여하며 오늘날 베를린 미술계의 가장 큰 행사가 되었다. 사실 베를린은 60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존재하며, 세계 미술계의 주요 도시로 꼽히지만, 그 명성에 비해 컬렉터의 수나 미술품 거래 수가 덜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베를린의 아트 씬이 다양한 국내외 채널로 이어 지어질 수 있도록 <베를린 갤러리 위크엔드>주최 측은 50여개의 공식 참여 갤러리 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와 연계 행사를 기획해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베를린으로 집중시키고자 한다. 베를린에 450여 개의 갤러리가 있지만, 갤러리 위크엔드에 선정되는 갤러리는 매년 50여개 미만이다. 이들 갤러리는 오프닝 리셉션과 갈라 디너 같은 공식 행사를 열어 아티스트와 세계에서 온 컬렉터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 역시 큐레이터 및 컬렉터 등 미술 종사자를 포함해 약 2만 명이 본 행사에 참여했다. 2016년 통계로 베를린 인구가 약 350만 인데 4월 27일 이 행사를 전후로 약 2백만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관광부가 발표했다.

<베를린 갤러리 위크엔드> 첫날, 싱켈 파빌론 Schinkel Pavillon에서 독일의 인기 절정 작가 존 보크 John Bock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미테의 아우구스트 거리 주변이나 크로이츠베르크의 린덴 거리 Linden Str., 최근 떠오르고 있는 포츠다머 거리 Potsdamer Str. 같은 갤러리 밀집 구역에 구석 구석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2018 베를린 갤러리 워크앤드 참여 갤러리 위치

종합예술 지역, 크로이츠베르크 (Kreuzberg)

베를린 동부 크로이츠베르크 지구는 현대미술 관련 갤러리나 미술관 외에도 대안 공간, 공공 전시 공간, 쿤스트페라인 (Kunstverein, 미술협회) 전시장 등이 들어서며 양적·질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작가는 물론 배우, 영화관계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거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카페와 바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 베를린미술협회(NGBK)가 위치한 오라니엔슈트라세 일대가 대표적이다.

미테 (Mitte)

베를린 비엔날레 등 대표적인 시각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가 자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블루칩 갤러리가 몰려 있다. 베를린의 가장 대표적인 갤러린 노이게림슈나이더(Neugerriemschneider), 갤러리 노르덴하케 (Galerie Nordenhake), 마이어 리거(Meyer Riegger) 갤러리, 갤러리 아이겐+아트(Galerie Eigen+Art) 가 자리하고 있고, 이들 갤러리스트들은 베를린 갤러리 워크앤드 및 베를린 아트씬을 주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체크포인트 찰리 (Checkpoint Charlie)

관광지로도 유명한 베를린 장벽의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 일대에는 40여 개의 갤러리가 있다. 특히 코흐슈트라세, 루디두치케슈트라세, 린덴슈트라세 지역을 ‘갤러리 디스트릭트’라 부르는데 콘라드 피셔 갤러리(Konrad Fischer Galerie), 갤러리 레비(Galerie Levy), 갤러리 크로네(Galerie Crone), 갤러리 카프리스 호른(Galerie Caprice Horn), 알렉산더 레비(Alexander Levy), 갤러리 게브르레만(Galerie Gebr. Lehmann) 등

포츠다머슈트라세

젊은 갤러리스트들은 미테와 크로이츠베르크 지구의 임대료가 급등하자,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포츠다머슈트라세는 ‘새로운 브루넬슈트라세’가 불리며, 많은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이곳으로 이전했을 뿐 아날, 현재 약 12개의 갤러리와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다. 아나 일 뤼페르츠 갤러리 (Anna Jill Lupertz Gallery), 갤러리 탄야 바그너(Galerie Tanja Wagner), 블레인 서던(Blain | Southern), 에스더 쉬퍼 등이 갤러리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다.

이외 주목할 만한 갤러리 리스트

하인츠-마틴 바이간드 갤러리 (Heinz-Martin Weigand Gallery) <http://www.galerie-weigand.de> 칼리어
| 게바우어(carlier | gebauer) <http://www.carliergebauer.com> 갤러리 옵달 (Galerie Opdahl
Berlin) <http://galerieopdahl.de> 갤러리 잭슨스 (Jacksons) <http://jacksons.se> 갤러리 미하엘 하스
(Galerie Michael Haas Berlin) <http://www.galeriemichaelhaas.de>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독일 연방총리실 문화미디어청		
	유형	정부	장르	문화 정책
	운영주체	독일 연방 총리실		
	소재지	베를린	설립년도	1998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		
	<p>독일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와 미디어,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중앙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총리실 하위기구로 문화미디어담당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문화 예산,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문화와 미디어 및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독립적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독일 문화 분야별 협회의 최고 협의 기관인 '독일 문화 협의회(Deutscher Kulturrat)'는 물론 문화정책 관련 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연방총리실에서 분리된 행정기구로서 문화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다른 행정부서처럼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연방총리실의 하위조직이며 예산도 '연방총리실' 예산 내에서 책정된다. 흔히 독일 문화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모니카 그뤼터스의 직책은 엄밀히 말하면 연방총리 문화미디어 국무위원(Staatsministerin fuer Kultur und Medien)이고 연방 문화미디어위임관(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으로서 활동한다.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조직의 위치를 보면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다.</p> <p>※ 자료 출처: +문화재정보고서 2016 (Kulturfinanzbericht 2016)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ildungForschungKultur/Kultur/Kulturfinanzbericht1023002169004.pdf?__blob=publicationFile +2018년 연방정부 문화예산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Pressemitteilungen/BPA/2017/06/2017-06-28-bkm-bundeshaushalt.html?nn=402706 https://www.goethe.de/de/kul/ges/21121642.html http://www.deutschlandfunk.de/deutscher-kulturrat-ich-wuensche-mir-ein.691.de.html?dram:article_id=372181 http://www.deutschlandfunkkultur.de/kulturpolitik-wir-brauchen-ein-bundeskulturministerium.1005.de.html?dram:article_id=399915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김화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p>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세계 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		
	유형	공공기관	장르	미술
	운영주체	독일 연방 총리실 산하		
	소재지	베를린	설립년도	1998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hkw.de/en/index.php		
○ 1988년 설립된 '세계 문화의 집'은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영화와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시설		용도	규모
공연장(Auditorium)		연주회, 영화상영, 연극 및 무용 공연, 회의장 등	1,250㎡ (무대 180㎡)
전시장		미술, 사진 등 전시 및 박람회 공간	880㎡
회의장	제1회의장	강연, 심포지엄, 회의 공간	214㎡
	제2회의장	소규모 회의 공간	58㎡
	제2회의장	소규모 회의 공간 및 예술가 작업실	59㎡
로비	1층 로비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연주회 및 무도회 공간	550㎡
	2층 로비	소규모 전시, 연회장	330㎡
공연장(Theatersaal)		무용 및 연극공연, 강연회, 영화상영, 연주회 등	400㎡ (무대 84㎡)
테라스		야외 연주회, 야회 카페 등	5,400㎡
식당		리셉션, 무도회 공간	480㎡
카페		음악 라이브공연, 무도회 등	350㎡
총계			9,971㎡

비유럽 국가들의 예술을 소개하고 유럽과 비유럽국가 간의 문화 교류 증진을 주 과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상황 및 현대예술과 세계화에 따른 예술.문화의 변동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전시.공연 등의 행사는 전문가, 큐레이터 그리고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획되고 진행됨.

○ 세계 문화의 집은 예술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문화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음.

○ 조직 및 인원 : 이사진, 프로젝트1과(문학, 사회, 학문), 프로젝트2과(미술, 영화, 미디어), 프로젝트3과(음악, 무용, 연극), 국제협력과, 행사조직과, 총무과, 언론 및 홍보담당과, 기술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을 포함하여 약 48명이 근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KINDL-Centre for Contemporary Art / 베를린 킨들 현대미술센터		
	유형	복합예술공간	장르	시각미술
	운영주체	개인 / 비영리공간		
	소재지	Am Sudhaus 3 12053 Berlin	설립년도	2014년
	기관현황	그룹전시 공간 1실, 대형설치 공간 1실, 카페 및 행사장 1실		
	홈페이지	http://www.kindl-berlin.com/		



양혜규 <침묵의 저장고 - 클릭된 속심> Photo ©Jens Ziehe

베를린에 위치한 신생 미술기관인 베를린 킨들 현대미술센터는 70년 전통 맥주 양조장이었던 킨들 공장 본사를 스위스 소장가 부부 부르크하르트 파른홀트와 살로메 그리자르가 인수한 후 미술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단지 내 보일러 하우스에서 열린 첫 전시 이후, 2016년 미술센터로 전관을 개방했다.

매년 작가 한 명을 선정하여 20미터에 달하는 층고가 인상적인 보일러 하우스 공간에 단독으로 장소특정적 작품을 선보이며, 스위스 작가 로만 지그너, 벨기에 작가 데이비드 클레어부트에 이어, 올해는 한국 작가 양혜규를 선정하였다. 맥주 양조장이었던 킨들의 보일러 하우스는 산업화 시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로, 양혜규는 이곳에 미묘하게 각도의 변화를 준 원통형을 기본으로 구성된 블라인드 신작 <침묵의 저장고 - 클릭된 속심>을 설치하면서 초기작부터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지역적 맥락을 추상적인 조각의 발원점으로 삼았던 작가의 태도를 견지하며 건축에 새겨진 시대와 역사를 재해석했다.



Photo ©Natascha Zivadinovic



건물 외관 Photo©Nathan Willock, 2017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The Barenboim-Said Academy /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		
	유형	교육기관	장르	음악학교
	운영주체	비영리 기구, 베를린 시 지원금으로 운영		
	소재지	베를린	설립년도	2012년 창단 2016년 개교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boulezsaal.de/		



copyright : Monika Rittershaus

유대계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들이 연간 90명씩 중동 출신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를 2016년 베를린의 옛 국립오페라 자리에서 개교했다. 음악을 통해 동서를 아우르며 세계 평화를 전파한다는 일종의 '유토피아 실험'으로 등록금과 숙식비 등을 독일 정부에서 지원한다.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는 4년제 학사 과정으로 모든 관현악기 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교명에 들어간 '사이드'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1935~2003)의 성으로, 바렌보임은 친구인 사이드와 했던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 학교를 열었다.

바렌보임은 이 아카데미가 "음악이란 수단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닌 인본주의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고, 그는 "이곳이 (중동 출신) 젊은 음악가들에게 매일 벌어지는 전쟁과 위기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은 음악가뿐 아니라 평화의 대사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 copyright: hg merz

이 아카데미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를 전신으로 하는데, 바렌보임과 사이드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중동의 청년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온갖 적대감과 비난, 단절된 소통의 높은 장벽을 무릅쓰고 그 꿈을 이루어냈다. 199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린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에서 데뷔를 했고, 이스라엘과 스페인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분쟁의 역사 위에 놓여 있는 국가의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2011년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임진각에서 베토벤 합창을 연주하기도 했다.

파울 슈마츠니 감독의 영화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후 2005년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 라말라에서 연주회를 갖기까지 7년동안의 대장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다.

'음악은 사회적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등을 통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방식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앞장서며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문학평론가인 동시에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웃 오브 플레이스-에드워드 사이드의 추억'은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거장인 고(故)사토 마코토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피에르 불레즈 살 / copyright : Pierre Boulez Saal

* TIP : 바렌보임-사이드 아카데미의 연주홀인 피에르 불레즈 살은 360도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담당했고, 도쿄 산토리 홀 및 미국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의 음향 설계를 담당한 음향학자 야스히사 도요타가 음향을 담당했다. 둘 모두 바렌보임의 오랜 친구이자, 아카데미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뜻깊은 공간인 만큼 재능기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공연이 열리기 1시간 전 남은 티켓에 한해서, 예술계에 종사하거나 30세 미만인 관람객은 모든 티켓을 12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기관/단체명	Urban Nation / 얼반네이션		
유형	미술단체	장르	스트리트아트
운영주체	민간 / 비영리기구		
소재지	Bülowstraße 7	설립년도	2013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urban-nation.com/museum/		

기관 및 단체

작년 초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트 아트 전문 미술관이 베를린에 문을 열었다. 보통 길거리에서 보던 작품들을 화이트 큐브 공간안으로 들여온다는데 우려도 컸지만, 베를린에서 2013년부터 150여명이 넘는 다양한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의 프로덕션을 지원해온 Urban Nation이 그 주축이 되었기에, 염려는 기우가 되었다. 뱅크시, 빌즈 (Vhils) 등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및 스트리트 아티스트들 100여명의 다양한 작품을 한 눈에 미술관 안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Urban Nation은 베를린 내 거주하는 작가들에게 2-3달 마다 정기적으로 미술관 전면 파사드 혹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리의 건물 외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시는 무료 입장이며 Berliner Leben와 Gewobag 재단에서 이들을 장기 후원하고 있다. 뉴욕, 런던, 베를린에 자리하고 있는 Strychnin Gallery의 디렉터

Yasha Young이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디렉팅을 맡고 있다.



뮤지엄 내 외부 ©Urban Nation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Deutsche Bank KunstHalle / 도이체 방크 쿤스트할레		
유형	민간 재단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소재지		설립년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deutsche-bank-unsthalle.de/kunsthalle/de/		

Photo: Nina Straßgütl



21세기의 메디치가는 은행이 아닐까.

아트 바젤 홍콩의 공식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Union Bank of Switzerland)는 아트 바젤이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최고의 조력자다.

도이체 방크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급 아트페어 TEFAF(The European Fine Art Fair)와 프리즈 아트 페어 (Frieze Art Fair)를 공식 후원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매년 혁신적인 현대미술작가 1인을 선정해 개인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작가" 선정 작업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 4인으로 구성된 도이치뱅크 국제 예술자문 위원회(Deutsche Bank Global Art Advisory Council)가 주관하고 있다. 올해의 작가상 수상작가에게는 베를린에 자리하고 있는 도이체 방크 쿤스트할레 (Deutsche Bank KunstHalle) 개인전의 기회를 준다.

6만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도이체 방크의 컬렉션 역사는 1979년에 시작한 '테마 컬렉션'으로 거슬러 오른다. 초창기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했지만, 이후 은행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해외 지점과 해외 법인이 생기면서 전 세계 유망 작가들의 작품으로 컬렉션 범주를 넓혔으며, 장르와 매체도 확장했다. 전체 소장품 중 90%를 전 세계 48개국, 911개 은행 건물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 CRA 등 28개 갤러리에 전시했다. 독일 작가 요제프 보이스, 게르하르트 리히터, 시그마 폴케 등의 최고가 작품을 소장하는 한편, 네오 라우호와 토마스 루프, 안드레아스 거스키가 세계적 스타가 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는 구겐하임 박물관과 손잡고 베를린에 세운 도이체 구겐하임 미술관에 작품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도이체 방크 쿤스트할레 (Deutsche Bank KunstHalle)로 이름을 바꾼 뒤 단독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비롯, 매년 4개의 전시를 연다.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운터 덴 린덴에 위치해 있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 영화 상영, 작가와의 대담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올해 여름, 기존 공간의 세배의 전시 공간을 확보한 Pinzessinnenpalais (Princesses' Palace) 공간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개관 전으로 베를린에 선보인 적이 없는 자체 소장품 전시 열릴 예정이다.

Photo: JOOWON KIM



올해 대표적인 전시로 터키의 대표적인 여류 모더니스트 작가인 Fahrelnissa Zeid의 회고전을 꼽을 수 있다. 이스탄불 지식인 가정에서 1901년 태어난 그녀의 90년 간의 예술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회고전을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를 초청해 열었다. 그녀의 작품은 최근 터키와 요르단에서 열린 다양한 전시와 비엔날레에서 재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라크 대사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어,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Roberto Burle Marx, Mineral roof garden, Banco Safra headquarters, São Paulo, 1983, Photo © Leonardo Finotti

2017년에는 브라질 화가 로베르토 부를레 막스(Roberto Burle Marx)의 개인전이 열렸다. 그는 화가보다는 조경가 혹은 정원사로 더 잘 알려있으며, 브라질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60여 년 동안 2,000개가 넘는 정원을 설계했으며 50여 종의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공간명	Berlinische Galerie contemporary art museum / 베를린 현대미술관
----	-----	---

유형	미술관	장르	모던아트, 사진, 건축
운영주체	베를린 시립		
소재지	Alte Jakobstraße 124-128	설립년도	1975년
공간현황	4,600 sqm		
홈페이지	https://www.berlinischegalerie.de/en/home/		



Photo ©berlinischegalerie

1. 소개

베를리니세 갤러리는 베를린 시에서 운영하는 신생 미술관 중 하나로 1870년부터의 베를린을 둘러싼 다다이즘, 다리파, 신즉물주의 같은 독일 아방가르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각종 실험적인 프로그램들 선보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베를린 예술계의 맥락을 관람할 수 있다. 모던아트와 사진, 건축을 아우르는 전시를 비롯해, 1870년부터 시작된 베를린 시 자체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1975년 첫 개관 이후, 좀 더 넓은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근처에 자리 잡은 지금의 위치로 2004년 이전했다.



©berlinischegalerie

2. 건물 내부 용도 및 면적

exhibition areas 4,100 qm

entrance hall 200 qm

auditorium 280 qm

Eberhard-Roters-hall 280 qm
 study hall 450 qm
 library with reading room 200 qm
 restaurant / café 240 qm
 shop 50 qm
 office area 680 qm
 restoration workshop 220 qm
 Atelier Bunter Jakob" / education area" 70 qm
 storage areas 3.000 qm
 traffic routes, technology, others 2.150 qm
 total internal floor area 12.200 qm

3. 2018년 대표전시 : 아트인 베를린 1880-1980

1880년부터 1980년, 100여년간의 대표적인 예술작품 흐름을 베를린시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19세기 말 회화 작품부터, 표현주의, 동유럽 영향을 받은 아방가르 시대 작품부터 전후 시대 모던 건축의 영향 또한 볼 수 있다. 회화작품, 판화, 조각, 사진 그리고 건축을 아우르는 소장품 전으로 베를린이 어떤 식으로 동서양 유럽의 중심지, 허브 역할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다.

(참여 작가) Rudolf Ausleger, Otto Bartning, Max Beckmann, Rudolf Belling, Fritz Brill, Max Dungert, Candilis-Josic-Woods und Schiedhelm, Rainer Fetting, Janos Frecot, Naum Gabo, Rolf Gutbrod und Frei Otto, Werner Heldt, Hannah Höch, Hermann Kaspar, Oskar Kokoschka, Margarete Kubicka, Fritz Kühn, Max Liebermann, Walter Leistikow, Jeanne Mammen, Jindřich Marco, Ludwig Meidner, Felix Nussbaum, Iwan Puni, Sergius Ruegenberg, Erich Salomon, Gertrude Sandmann, F. Albert Schwartz, Eugen Schönebeck, Fred Thieler, Hans Uhlmann, Wolf Vostell, Julie Wolfthorn, Anton von Werner, Heinrich Zille.

(작품 사진) 회화 건축물 사진 순





(전시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k2TruxZ4ok>

* TIP : 유럽 내 가장 아름다운 뮤지엄 카페로 불리는 공간이 이 미술관 안에 있다. 컬렉션 전시 뿐 아니라 특별전시가 적어도 한번에 2~3개 이상 열리는 만큼, 발길을 쉬어 가기 딱 좋다.

공간

공간명	volksbühne berlin / 폴크스뷔네 극장		
유형	극장	장르	연극
운영주체	베를린 시		
소재지		설립년도	1890년
공간현황	대형극장 1개, 소규모 극장 3개, 스튜디오 공간 1개		
홈페이지	https://www.volksbuehne.berlin/en/		

전통과 특징이 강한 극장 중 로자룩셈부르크 광장에 있는 폴크스뷔네(Volksbühne)는 1890년 설립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자유극장(théâtre libre)을 본떠 1889년 독일 베를린에 생긴 자유 무대(Freie Bühne)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 현실주의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 회원제 극장으로 만들어졌다. 1992년부터 예술감독을 맡아 온 프랑크 카스토르프가 오래된 유명 작품들과 소설들을 현대시대에 맞게, 주로 고도의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재창조하여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탄츠 임 아우구스트"라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장 큰 무용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1992년부터는 프렌츨라우어 베르크 지역에 위치한 프라터(Prater) 부극장도 운영하는데 이 곳에서는 언어극이나, 갑 스퀘드,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쉬쉬팝과 같은 실험적인 행위 예술을 선보인다.



copyright: David Baltzer

폴크스뷔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무대이자 중요한 “포스트드라마적” 작품공연의 중심지로 찬사를 받는 극장으로서, 본래 노동계급의 문화적 향유권을 위해 만들어졌다. 동베를린에 있는 폴크스뷔네의 배우들은 1989년 동독 민주화운동에도 열렬히 참여했다. 통독 후 최근까지 총감독을 맡았던 프랑크 카스트로프는 폴크스뷔네의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잇는 한편 실험적 연출을 선보이며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이 극장을 회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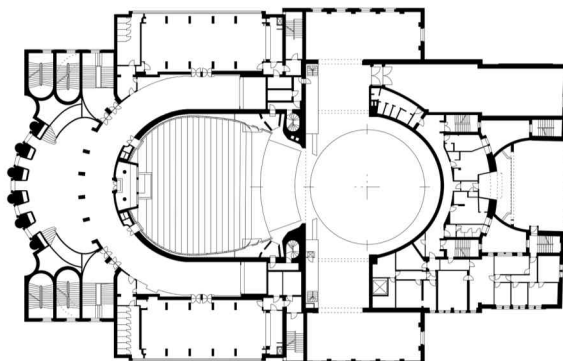
작년 가을 100년 넘는 전통에 세계적 명성을 지닌 폴크스뷔네가 ‘문화 계급투쟁의 중심 무대’가 되기도 했는데, ‘베를린판 월가 점령 시위’로 불리는 이번 농성은 벨기에 출신인 그는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스타 큐레이터이 출신 폴크스뷔네의 총감독 크리스 데르콘의 부임이 발단이였다.

폴크스뷔네가 쌓아온 전통은 ‘양상블 극장’이란 형식인데, 이는 정규직 무대 디자이너, 기술자, 배우들이 함께 매주 다양한 작품과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총감독 크리스 데르콘은 외부 작품에 공간을 대여하는 등 이들에게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시도 했는데, “폴크스뷔네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있는 등 많은 예술인 들의 우려를 일으켰고, 급기야 작년 여름 폴크스뷔네 단원들의 보이콧이 발생했다.

지역 연극인들은 이 사건을 문화 영역의 신자유주의화와 상업화의 상징으로 인식했고, 이런 변화를 반대하는 저항 공동체를 꾸렸다.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공연을 해주겠다고 자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3개월 동안 극장을 점거하겠다고 선포했다. 점거 농성 참가자는 500 석 규모의 극장을 채울 정도로 불러냈지만,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면서 거부하는 이들은 억지로 끌어냈다. 점거는 막을 내렸지만, 결국 올해 5월 크리스 데르콘은 사임 했다.



copyright: klaus-roth



극장 건물은 1913~1914년 독일 표현주의 건축가인 카우프만(Oskar Kaufmann, 1873~1956)이 설계하였다.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극장의 주요 회원이었던 노동자들이 낸 '노동자의 동전(Arbeiter Groschen)'으로 불리던 소액의 회비를 모아 지었다. 이를 반영하여 극장의 설립 취지인 '민중에게 예술을(Die Kunst dem Volke)'이 극장 건물에 새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950~1954년 한스 리히터(Hans Richter, 1882~1971)의 설계로 재건축되었다. 내부 인테리어와 건물 지붕 등이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본 무대인 그로세스 하우스(Großes Haus)를 비롯해 로터 살롱(Roter Salon), 그뤼너 살롱(Grüner Salon), 3층(3. Sto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렌츠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에 무용과 오페라 공연을 위한 무대를 별도로 갖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무대도 마련해 놓았다.

공간명	C/O Berlin		
유형	미술공간	장르	사진
운영주체	민간재단 / 비영리기구		
소재지		설립년도	2000년
공간현황	2.100 스퀘어 미터 전시공간, 교육프로그램 공간이 별도로 있음		
홈페이지	https://www.co-berlin.org/		

공간



© C/O Berlin

© David von Becker

C/O Berlin은 영화와 사진의 도시 베를린의 대표적인 사진 전문 전시공간이다. 젊은 작가들의 공모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의 근사한 대형 개인전을 뛰어난 큐레이팅 솜씨로 기획하는 팀 덕에, 베를린에서 대표적인 예술공간으로 손 꼽힌다. 사진가 Stephan Erfurt, 디자이너 Marc Naroska, 건축가 Ingo Pott, 이 세 명이 창립자로, 정부나 시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티켓 판매 및 아티스트 토크, 사진 클래스 등을 기반으로 재정을 마련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독립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Annie Leibovitz, Nan Goldin, Peter Lindbergh, Stephen Shore 등 쟁쟁한 작가들의 개인전을 기획했고, 2006년부터 젊은 현대 사진가들을 지원하는 어워드를 만들어, 수상자에게는 전시와 출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사진, 필름,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 전문가를 위한 사진 클래스도 인기가 많다. 이번 달 어빙 펜(Irving Penn)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240여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이는 대형 기획전이 열렸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공동 큐레이팅한 이 전시는 막 문을 열자마자 많은 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David von Becker



© David von Becker



European Month of Photography Berlin 2018 컨퍼런스 장면

© David von Becker

공간

공간명	Berliner Ensemble / 베를린 앙상블		
유형	극단/극장	장르	연극, 실험극
운영주체	민간, 정부지원		
소재지	Bertolt-Brecht-Platz 1	설립년도	1949년
공간현황	대극장 1,200석 극장 3		
홈페이지	https://www.berliner-ensemble.de/		



© Berliner Ensemble

베를리너 앙상블(Berliner Ensemble)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슈프라우어담 극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를린의 가장 유명하고 또 베를린 연극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8명의 전속배우가 극단에 속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 브레히트와 그의 부인이 본 극단을 1949년 창단 했고, 브레히트는 배우를 양성하고, 부인은 극장을 관리했다. 브레히트가 망명 중에 썼던 주요 극들을 직접 연출했는데, 첫 공연된 작품은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녀의 자식들』이다. 1955년의 파리 공연에 이어서 브레히트의 사후 1956년의 런던 공연은 프랑스 및 영국 연극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브레히트 극의 구조, 연기법, 연출법은 연극과 관객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당시 신세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베르히트 사후, 그의 작품은 역시 극단의 단골 레퍼토리로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현대극의 고전들, 셰익스피어, 체홉, 막스 프리쉬, 사무엘 베케트, 하이너 뮐러 등의 작품들이 이 극장에서 공연된다.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콩고 등 세계 여러나라의 극작가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하고 있으며, 극작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걸로 유명하다. 현재는 Moritz Rinke가 극작가 수장을 맡고 있다.

특히 극단에서 오랫동안 예술감독으로 활동한 클라우스 파이만에게 장기흥행작이 된 “클라우스 파이만 바지 한 벌 사고 나와 함께 식사하러 간다”를 헌정한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작품과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 외에도 페터 한트케, 보토 슈트라우스 그리고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작품들도 공연목록에 올라 있다.

로버트 월슨, 페터 짜덱, 마틴 부트케 등 유명한 연출가들이 다녀갔으며 현재는 클라우스 페이만이 극단장으로 있다. <배짱 센 어머니와 그 아이들>, <코카서스의 백묵원(Der kaukasische Kreidekreis)>은 전속 레퍼토리로 공연되고 있다.

네오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대극장(700석)과 200석의 소극장 “Kleines Haus” 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Neues Haus” (200석) 건물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다. 더불어 젊은 작가들과 실험적인 내용의 극을 선보이는 “Werkraum” 역시 신선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공간

공간명	Konig Gallery / 궤니흐 갤러리		
유형	화랑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개인		
소재지	Alexandrinenstr. 118-121	설립년도	2002년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www.koeniggalerie.com		

크로이츠베르크 지구의 신진 갤러리를 말할 때 궤니흐(Johann Konig) 갤러리를 빼놓을 수 없다. 오너인 요한 궤니흐의 집안은 대대로 예술계에 종사했다. 아버지는 현대미술 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의 아트 디렉터인데다,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스트인 바바라 바이스고, 삼촌은 영향력 있는 예술 서점이자 출판사 오너인 발터 궤니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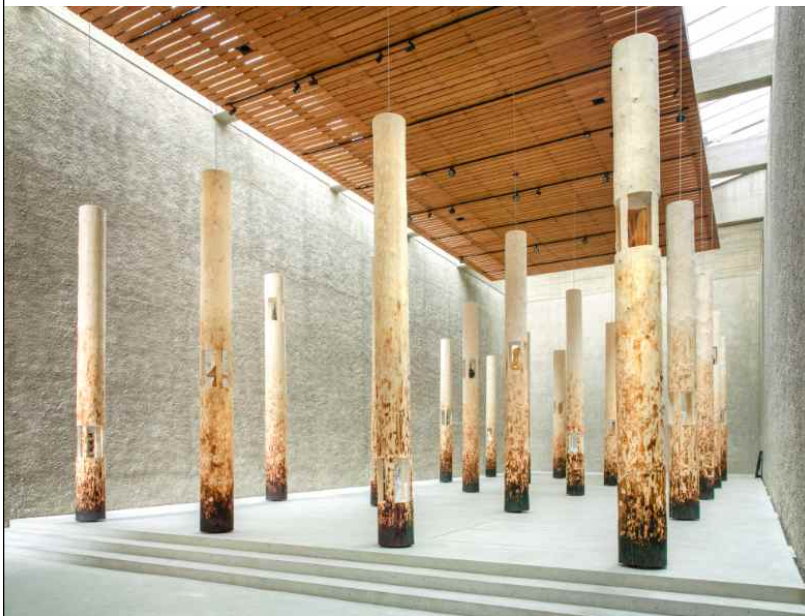
하지만 요한은 다원예술 및 개념 미술, 장소 특성적 설치 예술, 사진 및 비디오, 사운드 아트, 판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에너지 넘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38명의 작가를 대리하며, 대부분이 젊은 작가이다. 캐나다 작가 제러미 쇼, 이탈리아 작가 모니카 본비치니, 덴마크 디자이너 예페 헤인, 폴란드 출신 믹스 미디어 아티스트 알리차 크바데 등 최근 국제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 있다.



건물외관 photo Roman Maerz



2002년 베를린에서 시작된 이 갤러리는, 2015년 오래된 교회를 개조해 만든 현재 공간으로 이전했다. 전후 파괴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한 Spring-Project의 일환으로 재개발된 공간 상트 아그네스 갤러리 (St.Agnes Galerie)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축가 Arno Brandhuber가 레노베이션을 담당했다.더불어 퀴니흐는 갤러리 소식과 소속 작가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행하기도 한다.



현재 전시> CLAUDIA COMTE | WHEN DINOSAURS RULED THE EARTH

갤러리 워크앤드에 맞춰 문을 연 현재 전시는 스위스 출신 작가 클라우디아 콤프의 개인전 " 'When Dinosaurs Ruled the Earth' 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형 자연물을 이용한 설치 및 멀티 채널 비디오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 재료가 주는 역사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고대와 현재를 잇는 디지털 기술을 매체로 사용했다. 고전적인 주제인 나무와 대리석, 황동 등을 사용, 가장 산업화된 제조 과정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다. 전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잠시 돌아보는 시도라고 작가는 주제를 설명했다. 20개가 넘는 나무 모형 설치 작업이 갤러리의 높다란 천장을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장소에 썩어 없어지는 데만 45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병, 캔, 포장 용기 등이 동시에 조각의 주제로 쓰였다.



Ⅲ.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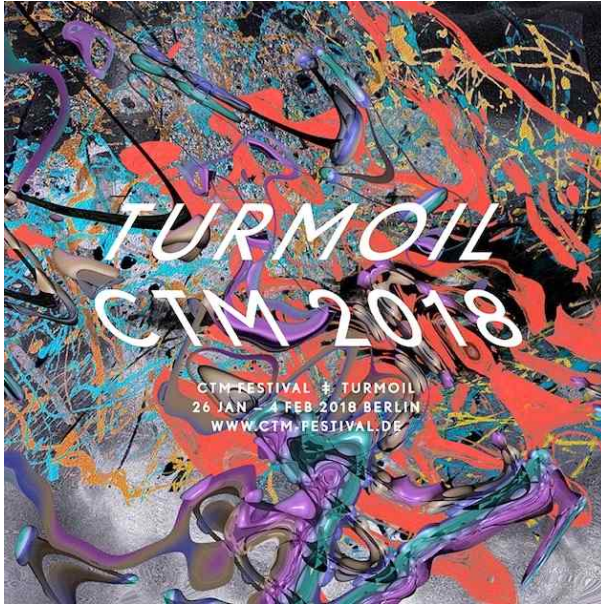
축제/행사명	CTM 2018 - TURMOIL (Festival for Adventurous Music and Art)		
유형	축제/공연	장르	다원예술
운영주체	독립, DISK AGENCY (http://www.disk-agency.de/about/)		
개최시기	매년 1월 말	시작년도	1999년
개최도시	베를린		
참가규모	18개 공연(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ctm-festival.de/news/		

올해 19회를 맞은 CTM - Festival for Adventurous Music and Art 은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10여 일 동안 매일 실험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시각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실험음악제이다. 매년 다른 주제로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신선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데, 올해의 주제는 Turmol로, 무용, 음악,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 아래 매년 선보이고 있다. HKW (세계 문화원 집)에서 열리는 트랜스미디어알레와 동시에 매년 열리며, 베를린의 대표적인 무용극장인 HAU 등 기관 뿐 아니라 클럽, 비어있는 임시 장소 등도 공연 장소로 십분 활용하기에 1월에 열리는 행사 중 가장 베를린스러운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인디뮤직 씬 및 사운드 아티스트들을 초대해 공연과 토크를 진행한 "Sound in China's Undergroud" 프로젝트가 올해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축제
및
행사



©ctm-festival



올해 포스터 ©ctm-festival



"Sound in China's Undergroud" 토크 장면 ©ctm-festival

* TIP :

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인 토크는 오디오 파일이 사운드클라우드 웹에 업로드 되어 공유 되고 (<https://soundcloud.com/ctm-festival>), 축제의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통해 (<https://www.instagram.com/ctmfestival/>) 비디오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더불어 100여 페이지 정도로 각 프로젝트가 상세 설명된 책자를 발행하는데, 이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독립예술출판에이전시이자 서점인 motto books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배포 되고 아래 링크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ctm-festival.de/fileadmin/user_upload/images/Projects/CTM_Magazine/CTM18_mag_WEB.pdf)

전체적인 프로그램 리뷰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tm-festival.de/festival-2018/welcome/ctm-2018-festival-in-review/>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AUDI E-TRON "SYMPHONY OF NOW" - A CINEMATIC LOVE LETTER TO BERLIN		
	유형	콘서트	장르	음악
	운영주체	기업후원 (아우디)		
	개최시기	매년 1월 말	시작년도	2015년
	개최도시	베를린		
	참가규모	만명 추산		
	홈페이지	http://www.audi-zeitgeist-projects.com/		

자동차 회사 아우디가 2015년부터 시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Audi Zeitgeist Projects 공연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 작곡가, 공연 예술자들의 협업 프로젝트이다. 매년 프로젝트에 가장 잘 맞는 장소를 골라, 장소를 주제로 만든 필름 상영과 함께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가 및 현대 음악가들의 협업 공연을 초연 할 수 있는 기회는 준다.



2015년 공연이 열린 Teufelsberg spy station, copyright: audi-zeitgeist-projects

1. Chilly Gonzales x Boys Noize x Teufelsberg (201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1500명이나 되는 스파이들의 집결소였던 Teufelsberg spy station 장소를 영감으로 한 곡을 두 명의 저명한 음악가 Chilly Gonzales, Boys Noize,에게 곡을 의뢰했고, 역시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음악가 Kaiser Quartet과 Stella le Page가 함께 공연에 참여했다.



black mountain 캐스팅 배우들과 무대, copyright: audi-zeitgeist-projects

2. Black Mountain (2016년)

단편 영화 블랙 마운튼은,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인 "Like a Wild Beast's Fur" 와 작곡가 Moritz von Oswald, 아트 컨설턴트 Jan Engel이 참여했다.

베를린 미술계의 주도적인 공간인 Galerie Patrick Ebensperger에서 행사가 열렸고, 베를린 클럽씬의 유명인사이자 배우, 예술가인 Nina Kraviz, Tomás Lemarquis가 공연에 참여했다.

copyright: audi-zeitgeist-projects



3. Symphony of Now (2018년)

영화감독 Johannes Schaff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진 후 베를린을 주제로 만든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역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가 Samon Kawamura, Alex.Do, Gudrun Gut, Thomas Fehlmann, Modeselektor and Hans-Joachim Roedelius 등이 참여했고,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이틀 동안 참여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IV. 문화예술 디렉토리 <인물>

인물명	KAY WUSCHEK	소속	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
장르	어린이/청소년 연극	연락처	KAY. WUSCHEK @parkaue.de
주요 이력	2005년부터 PARK AUE 극장장이자 드라마투르기를 맡고 있다. 독일 내 어린이/청소년 극장 연합을 이끌고 있으며, 파카우어는 독일 내 유일한 어린이/청소년 전용 국립 극장이다. 독일 국제 연극 기구(German Center of the 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ITI))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베를린 시 산하 극장협회의 정회원이다.		

인물



© Theater an der Parkaue

르네상스식의 고풍스러움을 자랑하는 파카우에 극장 건물은 무려 1911년에 지어져 남자 고등학교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전쟁 이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인 '구소련 지부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의 집'(1984)으로 그 이름과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후 '우정극장'(1950-1991), '카로셀 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carrousel Theater an der Parkaue)(1991-2005)라는 이름을 거쳐, 2005년부터 지금의 이름인 '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로 불리며 독일의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전용극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무려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파카우에 극장이지만, 레퍼토리와 시즌 공연들은 결코 구식 공연들이 아니다. 4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1, 133석을 갖춘 스테이지2와 67석을 보유한 스테이지3, 총 3개의 공연무대에서는 4살부터 20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와 창작극들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다.2)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개가 넘는 레퍼토리와 13개의 초연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달래 이야기” 공연장면

트레블링 코리안 아츠의 사업인 아트스테이지 산의 대표작 “달래 이야기”를 공연할 장소를 리서치 하다 본 극장을 알게 되었고, 2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KAY는 한국에도 몇 번이나 여행을 왔다 갔고, 그의 아들 역시 한국에서 1년이 넘게 공부를 했다고 했기에, 처음부터 서로의 문화에 호감이 있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본 공연을 위해 방문한 트레블링 코리아 사업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서로의 사업을 소개 하고, 추후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